

최소된 통합경로당 이름 바꿔 재추진

광주시, 22억 들여 추진했다 노인들 반발로 폐쇄 '빛고을거점 경로당' 하반기 공모 통해 7곳 선정

광주시가 노인들의 쉼터이자 편의공간인 경로당을 통·폐합해 통합거점경로당을 만들겠다고 거액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인근 노인들의 반발로 취소한 뒤 다시 명칭만 변경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민선 6기 공약 사항인 통합거점경로당을 남구 주월동에 신축하는데 22억원을 투입했으나 통합에 따라 거리가 멀어진 노인들의 반발, 주말 비개방 등으로 이 경로당을 폐쇄하고,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고령으로 인해 먼거리 이동이 어렵고, 주머니 사정

이 어려운데다 주말에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건물부터 지은 것이 화근이었다.

주월동 일대의 5개 경로당을 통·폐합 신축한 통합거점경로당을 조성하고, 운영비 6000만원을 추가로 들여 북카페와 주민 문화·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가까운 경로당을 없애고 먼 거점경로당을 이용해야 하는 노인 불편이 제기됐고, 다른 지역 경로당과 합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제시됐다. 또 경로당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하고 새로 설치하는데 드는 부지 매입비와 건물 신축비용 등도 부담으로 작용, 광주시 스스로 지난해 10월 사업 재검토를 발표했다.

이에 시는 다시 빛고을거점경로당 사업

을 내놓고 하반기 공모를 통해 7곳을 선정, 리모델링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주민 사랑방 역할 하는 주민소통형(5곳)과 사물놀이 등 주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문화센터형(2곳)으로 나눠 빛고을거점경로당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애초 광주시의 회에 빛고을거점 경로당 사업비로 2억원을 요구했지만 의회가 추가경정 심사 과정에서 절반을 삭감하면서 예산이 1억원으로 감액됐다는 것이다. 빛고을거점경로당의 명칭에 걸맞는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 된 셈이다.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경로당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노인들을 한 곳에 모으게 하는 것이 어려울뿐 아니라 이동에 대한 건강 부담, 교통이나 식비 등 경제적인 부담 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 남구의 한 공공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로당 4곳에 대해 광주시가 수년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광주시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동안 시설 개보수가 늦어지고 있는 경로당 노인들은 "거점경로당만 시설을 보수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북구지역 노인 84명은 주월동의 '통합거점형 경로당'의 실패사례를 들며, 자신들의 경로당의 이설 및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 경로당을 없애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할 의사가 있으면서 규모가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한 뒤 마을 속의 작은 복지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면서 "지역 부녀회가 재능기부를 통해 요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체를 운영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도 많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

마닐라 ARF 외교장관회의 북-미 안보리 결의 '충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체제 결의가 채택된 가운데, 북한이 참석하는 유일한 아태지역 내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7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포함,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 회담 당사국과 아세안 10개국 등 총 27개국 이 참가하는 ARF에서는 지난해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고조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ARF 회원국들을 상대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거듭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연남뉴스



일본 강타한 태풍 '노루' 7일 일본 남부 시코쿠섬 고치현 아키 항에서 태풍 노루에 밀려든 거대한 파도가 어선들을 덮칠 기세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벌써 사망 2명, 부상 15명이나 발생했으며, 현재 규슈(九州)와 시코쿠 인근 6개 현에서 12만2793세대 26만6386명에 대해 피난지시 혹은 피난권고가 내려져 있다. 태풍 노루는 8일 수도권에 속해 있는 간토(關東)와 도호쿠(東北) 지방을 통과한 뒤 9일 아오모리(靑森)와 홋카이도(北海道)로 이동하는 등 일본 열도를 종단하면서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광주인권도시포럼' 위상 높아졌다

9월 개막... 강경화 장관 참석
세계 인권도시 참여도 눈길

오는 9월 개막하는 '광주인권도시포럼'에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참석하기로 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포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스웨덴의 인권정책 전환을 살펴보는 '스웨덴 데이'를 운영하는 등 콘텐츠도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오는 9월14일부터 17일까지 '2017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로 7년째다. 올해 포럼에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강 장관과 구두로 약속된 상태로 특별한 국내외 일정 변화가 없다는 전제다. 강 장관은 앞서 지난 2012년, UN인권고등판무소 부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당시 축사는 했던 이희호 김대중평화재단 이사장

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적 인권도시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우선 마틴루터 킹 목사가 투옥되고, 백인우월주의자 집단인 KKK단에 의해 4명의 어린 소녀들이 희생되고 사냥개까지 동원된 잔혹한 진압의 아픔을 딛고 흑인 인권운동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한 미국 알라바마주 버밍햄시가 참가를 알려졌다. 흑인시장인 윌리엄 아브라함 벨 시장은 오프닝 라운드 테이블에서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정과제로 본 광주 미래 ⑦친환경 미래 에너지 육성 II

에너지 연구중심 한전공대 설립 4차 산업혁명·융합형 인재 양성

레독스흐름전지 인증센터
친환경 제로 커뮤니티 구축
융합 열에너지 단지 조성도

이 대표적이다.

레독스흐름전지(RFB) 시험·인증센터는 라틴아미리카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유력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로 유망하며, 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광주에 인증센터를 구축할 경우 미래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전망하고 있다. 2018년부터 3년간 34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친환경 제로에너지 커뮤니티(ZEC) 플랫폼은 전기·열·물·가스 수요공급, 정보통신기술(ICT)+빅데이터, 환경 문제를 총망라한 시스템으로, 에너지 자립 촉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는 현재되고 있는 지역 가전산업이 에너지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계기를 마련해주는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250억원 등 500억원으로 2018년부터 5년간 투입해 테스트베드 구축, 인증센터 설립, 건물, 단지, 마을, 도시 단위로 확장 적용 가능한 시스템 구현·실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500억원으로 재순환 열에너지 융복합 원천기술 개발·실증, 사업화 지원 등을 하게 되는 도심형 융합열에너지 이용·발전 실증단지도 조성한다. 미활용 산업폐열 회수 발전 사업, 도심형 미활용 복합발전사업 모델 개발, 도심형 대용량 지열이용 실증 사업 등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와 전남도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과 함께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시설이라고 입을 모으는 것은 한전공과대학(KEPCO tech)이다. 20세기 산업인 제철산업의 총아이자 연구개발의 거점이 된 포스텍(Postech)이 영남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21세기형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호남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교육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부지는 유동적이지만 사업기간(2018~2022)과 사업비 5000억원(한전 부담)은 문제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에너지 분야 연구중심 대학을 설립해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신기술 융합형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대학·에너지공기업·민간 협력 에너지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공헌활동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복안이다.

사업규모는 작지만 지역 미래와 연관 깊은 사업들도 추진동력을 얻었다. 레독스흐름전지(RFB) 시험·인증센터 구축, 친환경 제로에너지 커뮤니티(ZEC) 플랫폼 구축, 도심형 융합열 에너지 이용·발전 실증단지 조성 등

문대통령 휴가기간 읽은 '명견만리' 판매량 급증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기간 동안 읽고 추천한 '명견만리'(총 3권) 판매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는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언급하기 전 일주일(2017년 7월 29일~8월 4일)간 일일 평균 판매량이 76권이 었다. 그러나 '명견만리'를 언급한 이후 6일 하루에만 789권이 팔려 10배가 넘는 판매량이 신장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출간된 3권 '정치·생애·직업·탐구 편'은 교보문고 인터넷 일간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7일(오후 3시 기준)에는 650권(8.5배)을 기록하며 '명견만리' 주

말 판매량도 전주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라딘은 "구매품목의 평균연령은 43세로, 40대가 38.1%로 가장 많았다"면서 "연령별로는 여성(58.5%)이 남성(41.3%)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책은 KBS 1TV에서 2015년 3월부터 방송 중인 동명의 리처멘터리쇼(강연과 다큐멘터리를 결합한 프로그램)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난도, 김영란, 최재천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부터 서태지, 성석제 등 문화계 인사까지 출연해 우리 사회의 아젠다를 효과적으로 공론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4만7천원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농업 업무자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보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 (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해가온빌딩 1층)